

지역 소식통

정읍시, 23일 '귀리 세트' 공영홈쇼핑서 판매 방송

정읍시가 홈쇼핑 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정읍명품귀리사업단이 생산한 명품 귀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방송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송은 23일 12시 40분 공영홈쇼핑에서 '귀리 세트(1세트 1kg X 10팩, 36,900원)'를 5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귀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해 국내 소비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귀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숙변을 제거하고 장 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태근 부안군의원,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촉구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읍·행안면)은 지난 18일 폐회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점차 침체해 가는 부안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근 의원은 "부안상설시장은 지난 1973년 신축 개장한 이래로 48년의 역사 동안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대형마트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현대화 등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부안상설시장의 새로운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안전한 백신접종 행정력 집중

정읍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정읍시가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읍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으며,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42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 35사단과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과 백신 수송 및 방호관리, 화재점검 및 긴급이송체계, 주변 교통관리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마쳤다.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

이자 입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해 백신 도입 전 운영 안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정전사고나 냉동고의 고장에 대비해 자가 발전 시설, 무정전전원장치와 예비 냉동고를 갖춰 혹시 모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접종대상자는 정읍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5,490명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동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의 협조

로 접종대상자에게 접종 의사를 확인하고, 접종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최종 접종대상자를 선정해 백신 수량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담당자 관리하에 안전한 접종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읍·면·동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3일간 방문이나 유·무선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 이·통장님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접종 시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도 수립해 백신을 접종하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1년 군민과의 공감확산 대화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있다.

"지역발전 토대 마련해 나갈 것"

부안군,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 군민의견 162건 수렴

부안군은 2021년 군민과의 공감확산 대화를 진행해 군민의견 162건을 수렴했으며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일 백산면을 시작으로 10일 보안면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1년 군민과의 공감확산 대화를 통해 군민과 소통했다.

이번 공감확산 대화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장 방역소독기 설치, 행사 전후 소독 실시,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행사장 입장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됐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난해 군정성과와 올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또 건강한 자족 도시,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활력 있는 경제·살고 싶은 도시, 그린 뉴딜의 선도도시, 사람중심 포용도시 구축 등 부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공감확산 대화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견 162건이 수렴됐으며 권익현 군수는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건설 분야 89건, 경제·산업 분야 24건,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 및 환경·보건·복지 분야 각각 17건, 자치·생활 분야 15건 순으로 많았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속원사업 분야에 건의가 집중됐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제언"의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남보다 한 발 앞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상하농원, '꼬마농부 딸기스쿨 패키지' 운영

6차 산업관광 프로젝트 선정

고창군과 상하농원이 새 봄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며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꼬마 농부 딸기스쿨 패키지'를 오는 4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꼬마 농부 딸기스쿨 패키지'는 지난해 고창군과 상하농원 협업해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 '짓다·놀다·먹다·쉬다' 6차 산업관광 프로젝트로 선정돼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다.

지역의 딸기농가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진행하고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겸비한 농가보급형 딸기 스마트관(상하베리쿠팡)에서 딸기교육, 모종심기 등 체험을 진행한다. 또 자연 속에서 만나는 품격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파머스 빌리지 숙박과 스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인 고인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딸기교육, 모종심기 등 체험을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돌박물관-고창읍성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을 개발해 고창을 방문하시는 여행객에게 입장권을 제공하여 함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직되었던 몸과 마음을 풀어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창군청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산, 들, 강, 바다, 갯벌 등 고창의 우수 자원을 활용해 고창만의 특화된 매력력 보장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소규모 맞춤형, 농촌·힐링체험 등 코로나19로 바뀐 관광트렌드를 살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2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국민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하여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최인규 의장은 문찬기 부안군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를 이어나

갔으며,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화 혁명 등 이른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미얀마 국민들의 고귀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큰 희생 없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최인규 의장은 다음 참여주자로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을 지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3일부터 65세이상 AZ백신 접종 시작

고창군이 23일부터 만 65세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455명)은 23일, 요양시설(234명)은 30일부터 각각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요양병원에선 상근 의사가 예진 후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경우는 보건소 접종팀 등이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접종하게 된다.

특히 고창군은 4월15일부터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체육관에 '고창군코로나19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만 75세 이상 일반인, 노인시설(주거, 주야간, 단기보호)에 대한 접종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접종 동의를 받고 있다.

예방접종시스템에 4월6일까지 등록 완료하고, 4월15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투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